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11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저렴한 700여채의 주택 및 자택소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1,700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하다

Binghamton 주택, 커뮤니티 및 종교 기반 개발 회의에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고 **Southern Tier** 인근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발표를 하다

지원금에는 **Southern Tier**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여달러가 포함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00여채의 저렴한 주택 및 새로운 자택소유 기회를 뉴욕주 전역에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지자체에 1,700만달러의 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의 주택, 커뮤니티 및 종교 기반 개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주 정부기관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곧바로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회의와 워크숍 중의 하나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현지 단체들과 개발 파트너들이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운타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뉴욕주는 Upstate 경제를 강화하면서 적정 가격대의 주택 옵션과 특히 시골 및 빈민가 지역에서 자택소유 기회를 늘리는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Upstate Revitalization 사업을 통해 전례 없는 투자를 단행하고 비영리 단체 및 종교 기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지원금이 지자체에 곧바로 전달되어 이곳들이 커뮤니티 재활성화에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은 뉴욕주의 51개 프로젝트에 제공되고 추가로 2,390만 달러의 추가 민관 기금은 뉴욕주의 가난한 시골과 도시 빈민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들은 469채의 주택 재건과 개량 사업과 18채의 신규 주택 건설에 사용되고 224가구가 자택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구입 계약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HCR(Home and Community Renewal)이 관리하는 HOME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안전하고, 멋지고,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에는 Southern Tier에 사는 46명의 주민들의 집을 개량 및 수선해주는 100만여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First Ward Action Council, Inc**에 **300,000달러** 지원. Broome 카운티에 있는 15명의 아주 낮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고치고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 **Community Progress, Inc.**에 **400,000달러** 지원. Chemung, Schuyler, Steuben 카운티에 최대 15명의 저소득 가구주에게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 **Opportunities for Chenango, Inc.**에 **400,000달러** 지원. 16채의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재건과 에너지 보존 대책을 지원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thern Tier Soaring 촉진

오늘 발표로 선진 경제 개발을 위한 이 지역의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뉴욕주는 2012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31억 달러를 투자해 인재를 끌어 모으고 사업을 키우며 리노베이션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Binghamton, Johnson City, Corning 같은 곳을 발전과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Southern Tier Soaring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10,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outhern Tier는 너무나 오랫동안 번영의 길을 닦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Southern Tier에서의 공동 투자에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커뮤니티인 Upstate에 좋은 징조입니다.”

Donna Lupardo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회사들을 유치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을 꾸준히 재건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적정 가격대의 주택은 이러한 활동의 중요 요소입니다. 각 가정들이 살기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Broome 카운티 장인 Debra Pres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지으면 전체 지역의 지속적인 재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Broome 카운티에서 낡은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고 동네를 개선하고 주택 옵션을 확대해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기금은 경제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공약이 이뤄지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Binghamton 시장인 Richard Dav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inghamton과 우리 지역 곳곳에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 기관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회의는 조직들을 하나로

뭉고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히 다가가도록 해주고 우리의 강한 풀뿌리 조직 네트워크가 Southern Tier 주민들의 삶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Binghamton University에서 열린 오늘 회의는 HCR, 주지사 소속 OFBCDS(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및 주지사의 비영리조합이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정신건강부(Office of Mental Health), 임시장애지원부(Office of Temporary Disability Assist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포함해 다양한 주정부 소속 기관의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방 참석자들로는 주택개발업체, 비영리단체 및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 비영리단체와 적정 가격대의 주택개발업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기회 및 파트너십 발전
- Southern Tier에서의 자택보유율 증대
- 성공적인 커뮤니티 재활성화

Binghamton 회의는 10월 하순에 Utica에서 12월에는 Rochester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열렸습니다. 이 회의들은 뉴욕주에 소속된 비영리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량을 구축하고 정부를 보다 대응력 있고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청장/CEO인 **James S.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unding the Governor announced today enables precisely the partnerships we are here to talk about. The \$17 million in housing awards improves homes and communities, builds on the momentum and the significant resources the Governor has already committed to the Southern Tier. If there were ever a time to be hopeful and optimistic about the future, that time is now.”

주지사의 종교 커뮤니티 개발 서비스 식무국장 겸 부소장인 **Karim Cam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해 Cuomo 주지사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한 것은 종교 커뮤니티와 주정부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현장에서 커뮤니티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상호 윈윈하는 조치입니다.”

비영리 서비스업체를 위한 기관간 코디네이터인 **Fran Barr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컨퍼런스를 뉴욕에 마련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그들은 비영리단체와 열린 대화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만들 수 있는 다이내믹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인지원실의 **Samuel D. Roberts**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비영리단체 및 종교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하며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경제 기회를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뉴욕주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접근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추가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